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공간이용행태  
The Behavior of Space Occupancy as Demonstrated caused by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Residents in Group Homes for Elderly People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전공  
겸임교수 김 현 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임 희 경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전공  
교 수 안 옥 희

Major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 Hyun Jin, K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Hi Kyung, Lim  
Major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Ok Hee, An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분석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26 elderly residents living independently in 4 group homes for their abilities in daily living and analyzed their behaviors of space occupanc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the group homes and the daily activities of the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residents in the group home considered bathing and cooking to be the most difficult of their living activities. The residents were categorized into "Independent," "Semi-dependent" and "Dependent" groups, on the basis of their ADL and IADL scores, and individual groups were examined. On ADL score it was shown, then, that 65.4% of the residents were independent in ADL, but there was no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IADL between the independent, semi-dependent and dependent groups.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ADL and IADL among the groups. The independent group's residents were shown to be independent in ADL and IADL, whereas the but those of the semi-dependent and dependent groups' residents were lower in IADL than in ADL.

Corresponding Author: Ok Hee, An, Major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49, Korea Tel: 82-53-810-2864 E-mail: aohee@yumail.ac.kr

2) When their behaviors of space occupancy were examined, it appeared that the independent group showed a different space sharing pattern among individual residents, with a wide range of behavior of space occupancy. Meanwhile, The semi-dependent group mostly shared a common space with simpl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hile no any service or leisure program was provided. However, the dependent group mainly consisted of residents who had a low level of independence in ADL and IADL, so that their behaviors of space occupancy were entirely negative.

**주제어(Key Words):**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공간이용행태(Behavior of Space Occupancy), 고령자 그룹홈(Group Home for Elderly People)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주택’이나 ‘고령자 주거환경’이란 용어가 그리 익숙하지 않다. 이는 최근까지 고령자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가치관과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특별히 ‘고령자주택’ 혹은 ‘고령자 주거환경’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고령자가 완전히 가족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고, 부모부양의식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 경향과 함께 피부양자였던 고령자 자신들도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자의 부양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참여가 필요하다(지은영, 2003).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의 소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획득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환경을 필요로 한다.

즉 고령자는 노후에 시설주거보다는 살던 곳에서 그냥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가사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원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주거 유형이 아닌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자 그룹홈은 종래의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지역 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서혜정, 2002). 이는 시설을 수용의 장이 아닌 생활의 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시점의 전환에 기초하여 나타난 고령자 시설의 물리적 환경 및 생활 전반에 있어서 주거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田中紀之, 神吉優美, 三浦 研, 高田光雄, 2005).

그러나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고령자의 여러 특성, 예를 들어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경제적 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디자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공간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그룹홈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의 생활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에서 생활하는 26명의 고령자이다. 조사대상 시설의 경우 그룹홈의 운영 방침, 공간 관리, 공간 사용, 식사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자립 단계별로 유형화 하였다(표 1). 조사대상의 개요는 <표 2>와 <표 3>과 같다.

거주자들의 일반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IADL)의 수행정도를 파악하

<표 1> 자립단계에 따른 그룹홈 분류

	자립형 그룹홈	반의존형 그룹홈	의존형 그룹홈
운영 방침	거주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거주자들의 생활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거주자의 생활에 적극적, 직접적인 관여
공간 관리	거주자	운영자 + 거주자	운영자
공간사용	어려움 없음	부분적 어려움	전부 또는 부분적 어려움
개인실	1인 1실	2인 이상이 함께 사용	2인 이상이 함께 사용
식사서비스	공동식사(부분적 개별 취사)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	공동식사 일부 타인의 도움을 받음	공동식사 일부 또는 전부 타인의 도움을 받음

〈표 2〉 그룹홈 시설 개요

변 인	자 립 형		반의존형	의존형		
	○그룹홈	ㄱ그룹홈	ㄴ그룹홈	ㄷ그룹홈		
설립주체 및 관리유형	개 인	개 인	개 인	개 인		
설립년도	1997년	2000년	2004년	1998년		
위 치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업지역		
주택구입형태	매 입	매 입	매 입	매 입		
주택형태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거주자구성	성 별	남자 1명 여자 4명	2명 1명	- 8명	3명 7명	
	연 령	60대	-	-	-	1명
		70대	3명	1명	3명	3명
		80대	2명	2명	5명	5명
		90대	-	-	-	1명
전 체	5명	3명	8명	10명		

〈표 3〉 그룹홈 거주자 개요

시 설	거주자	연령	성별	입주기간	건강상태*	
자립형	○그룹홈	B-1	72세	여자	1년 3개월	3
		B-2	80세	여자	4년	4
		B-3	78세	여자	1년	4
		B-4	80세	남자	3년	3
		B-5	79세	여자	4년	4
	ㄱ그룹홈	C-1	89세	남자	4년	5
		C-2	74세	여자	1개월	3
		C-3	83세	남자	4년	5
	반의존형	ㄴ그룹홈	A-1	88세	여자	9개월
A-2			83세	여자	1년 3개월	3
A-3			73세	여자	8개월	3
A-4			75세	여자	2개월	5
A-5			81세	여자	1개월	3
A-6			82세	여자	4개월	3
A-7			82세	여자	1개월	5
A-8			77세	여자	5개월	4
의존형	ㄷ그룹홈	D-1	66세	남자	1년	3
		D-2	78세	남자	5개월	2
		D-3	79세	남자	4년 10개월	1
		D-4	88세	여자	7년	3
		D-5	74세	여자	7개월	4
		D-6	91세	여자	1년 6개월	4
		D-7	89세	여자	3개월	2
		D-8	81세	여자	5개월	4
		D-9	84세	여자	4개월	2
		D-10	84세	여자	7개월	2

\*건강상태의 경우 자가 판정이며, 5점 척도이다.

기 위하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별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진촬영과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간의 배치 및 구성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5년 8월 4일~22일에 걸쳐 본 연구자와 사전에 조

〈표 4〉 ADL과 IADL 조사도구

K-ADL (7항목)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3점 척도
K-IADL (10항목)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금전관리하기, 약 챙겨먹기	3점 척도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전화사용하기	4점 척도

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한 조사원 2명이 방문 조사하였다.

ADL 척도와 IADL 척도로 사용한 조사도구는 대한노인 병학회에서 개발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습관과 문화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K-ADL과 K-IADL(이영수, 원장원, 2002)을 선택하였다(표 4).

또한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생활환경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그룹홈 거주자의 하루 일과 및 그룹홈에서의 모든 행태를 관찰하여 생활행위 및 공간이용행태를 유형화하였다. 관찰요일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 주중에 1일 관찰하였으며, 관찰시간은 기상시간(5시 30분)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15분 간격으로 도면을 응용한 기록용지에 거주자별 공간이용과 행동의 변화를 기록하며, 생활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 III. 결과 및 분석

#### 1.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노후생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신체적 기능의 상태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신체기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박상하, 2003).

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보다 진보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그리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적으로 일상생활을 반복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신체동작군이라 할 수 있다(선우덕, 오영희, 변재관, 이주열, 석재은, 김창엽, 전경자,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ADL과 IADL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1) 일반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DL의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1~3 단계로 제시하고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표 5)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ADL

N(%)

일반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연 령		성 별		전 체	M(SD)
		80세 미만	80세 이상	남 자	여 자		
옷 입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7(63.6)	9(60.0)	3(50.0)	13(65.0)	16(61.5)	2.50( .71)
	부분적으로 가능	2(18.2)	5(33.3)	1(16.7)	6(30.0)	7(26.8)	
	전혀 할 수 없음	2(18.2)	1( 6.7)	2(33.3)	1( 5.0)	3(11.5)	
세수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6(54.5)	7(46.7)	3(50.0)	10(50.0)	13(50.0)	2.31( .79)
	세수, 양치는 가능, 머리감기는 불가능	3(27.3)	5(33.3)	1(16.7)	7(35.0)	8(30.8)	
	전혀 할 수 없음	2(18.2)	3(20.0)	2(33.3)	3(15.0)	5(19.2)	
목욕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36.4)	2(13.3)	2(33.3)	4(20.0)	6(23.1)	1.73( .83)
	샤워는 가능, 때 밀기는 불가능	2(18.2)	5(33.3)	1(16.7)	6(30.0)	7(26.9)	
	전혀 할 수 없음	5(45.5)	8(53.3)	3(50.0)	10(50.0)	13(50.0)	
식사하기	도움 없이 식사가능	8(72.7)	10(66.7)	4(66.7)	14(70.0)	18(69.2)	2.69( .47)
	타인의 도움으로 혼자서 식사가능	3(27.3)	5(33.3)	2(33.3)	6(30.0)	8(30.8)	
	전혀 할 수 없음	-	-	-	-	-	
이동하기	도움 없이 방밖 출입가능	10(90.9)	13(86.7)	5(83.3)	18(90.0)	23(88.5)	2.81( .57)
	타인의 도움으로 스스로 방밖 출입가능	-	1( 6.7)	-	1( 5.0)	1( 3.8)	
	전혀 할 수 없음	1( 9.1)	1( 6.7)	1(16.7)	1( 5.0)	2( 7.7)	
화장실 사용하기	도움 없이 화장실 출입가능	9(81.8)	11(73.3)	4(66.7)	16(80.0)	20(76.9)	2.65( .69)
	타인의 도움으로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능	-	3(20.0)	-	3(15.0)	3(11.5)	
	전혀 할 수 없음	2(18.2)	1( 6.7)	2(33.3)	1( 5.0)	3(11.5)	
대소변 조절하기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가능	7(63.6)	9(60.0)	4(66.7)	12(60.0)	16(61.5)	2.46( .76)
	대소변을 가끔 실패	2(18.2)	4(26.7)	-	6(30.0)	6(23.1)	
	전혀 조절할 수 없음	2(18.2)	2(13.3)	2(33.3)	2(10.0)	4(15.4)	

결과는 <표 5>와 같다.

ADL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3점 기준에 평균 1.73점으로 '목욕하기' 행위를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수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순으로 수행하기 어려워하였다. 한편, '이동하기' 행위는 가장 수행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상하(2003)의 연구에서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가 목욕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고령자 복지서비스 중 목욕서비스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현진 외 2인(2005)의 연구에서는 그룹홈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중 목욕서비스는 2.4%로 가장 낮은 희망율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고령자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거주자, 운영자, 복지사, 건축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획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항목별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의 연령은 66세부터 91세까지 넓은 범위이나 평균 연령은 80.4세로 80세 전후의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고령자에 비해 여자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조금 더 느꼈다. 이는 성별의 차이인지 거주자 수의 편차(남자 6명, 여자 20명)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같은 연령군의 남자고령자에 비하여 여자고령자에게서 유병률이 높다(박경숙,

2003)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ADL의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4단계 또는 3단계로 제시하여 평가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IADL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사준비하기(M=1.88)'를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빨래하기', '물건사기'의 순으로 어려워하였다. 한편, '교통수단 이용하기(M=2.54)'와 '몸단장하기(M=2.50)' 행위는 수행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상하(2003)의 연구에서는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가 금전관리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박상하(2003)의 연구는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그룹홈 내에서 식사,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 받아 생활하는 데 익숙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가사작업 등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행위를 자신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항목별로 연령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ADL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고령자보다 여자고령자들이 도구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

## 3)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따른 거주자 특성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따라 거주자들을 자립(ADL:

〈표 6〉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IADL

N(%)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연령		성별		전체	M(SD)
		80세 미만	80세 이상	남자	여자		
몸단장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8(72.7)	10(66.7)	4(66.7)	14(70.0)	18(69.2)	2.50(.76)
	부분적으로 가능	1(9.0)	3(20.0)	-	4(20.0)	4(15.4)	
	전혀 할 수 없음	2(13.3)	2(13.3)	2(33.3)	2(10.0)	4(15.4)	
집안일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5(45.5)	8(53.3)	3(50.0)	10(50.0)	13(50.0)	2.12(.95)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	1(9.0)	2(13.3)	-	3(15.0)	3(11.5)	
	전혀 할 수 없음	5(45.5)	5(33.3)	3(50.0)	7(35.0)	10(38.5)	
식사 준비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5(45.5)	5(33.3)	3(50.0)	7(35.0)	10(38.5)	1.88(.95)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	-	3(20.0)	-	3(15.0)	3(11.5)	
	전혀 할 수 없음	6(54.5)	7(46.7)	3(50.0)	10(50.0)	13(50.0)	
빨래하기	도움 없이 빨래 가능	5(45.5)	7(46.7)	3(50.0)	9(45.0)	12(46.2)	2.00(.98)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	1(9.0)	1(6.6)	-	2(10.0)	2(7.6)	
	전혀 할 수 없음	5(45.5)	7(46.7)	3(50.0)	9(45.0)	12(46.2)	
근거리 외출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가능	4(36.4)	6(40.0)	3(50.0)	7(35.0)	10(38.5)	2.19(.75)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	6(54.5)	5(33.3)	2(33.3)	9(45.0)	11(42.3)	
	전혀 할 수 없음	1(9.0)	4(26.7)	1(16.7)	4(20.0)	5(19.2)	
교통수단 이용하기	도움 없이 교통수단 이용가능	4(36.4)	4(26.7)	3(50.0)	5(25.0)	8(30.8)	2.54(1.14)
	타인의 도움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가능	2(18.2)	1(6.6)	1(16.7)	2(10.0)	3(11.5)	
	타인의 도움으로 택시, 승용차 이용가능	4(36.4)	6(40.0)	1(16.7)	9(45.0)	10(38.5)	
	전혀 할 수 없음	1(9.0)	4(26.7)	1(16.7)	4(20.0)	5(19.2)	
물건사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36.4)	4(26.7)	3(50.0)	5(25.0)	8(30.8)	2.31(1.32)
	일부품목에 한해 스스로 물건구입 가능	2(18.2)	1(6.6)	-	3(15.0)	3(11.5)	
	타인의 도움으로 물건구입 가능	1(9.0)	3(20.0)	-	4(20.0)	4(15.4)	
	전혀 할 수 없음	4(36.4)	7(46.7)	3(50.0)	8(40.0)	11(42.3)	
금전 관리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36.4)	6(40.0)	2(33.3)	8(40.0)	10(38.5)	2.00(.89)
	부분적으로 가능	3(27.3)	3(20.0)	1(16.7)	5(25.0)	6(23.1)	
	전혀 할 수 없음	4(36.4)	6(40.0)	3(50.0)	7(35.0)	10(38.5)	
전화 사용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3(27.3)	3(20.0)	3(50.0)	3(15.0)	6(23.1)	2.15(1.19)
	일부의 전화번호만 걸을 수 있음	1(9.0)	1(6.6)	-	2(10.0)	2(7.6)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 못함	4(36.4)	4(26.7)	1(16.7)	7(35.0)	8(30.8)	
	전혀 할 수 없음	3(27.3)	7(46.7)	2(33.3)	8(40.0)	10(38.5)	
약 챙겨먹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5(45.5)	6(40.0)	3(50.0)	8(40.0)	11(42.3)	2.12(.86)
	타인의 약 준비 도움으로 가능	3(27.3)	4(26.7)	-	7(35.0)	7(26.9)	
	전혀 할 수 없음	3(27.3)	5(33.3)	3(50.0)	5(25.0)	8(30.8)	

17~21점, IADL: 28~33점), 반의존(ADL: 12~16점, IADL: 16~27점), 의존(ADL: 7~11점, IADL: 10~15점)으로 구분하였다(표 7).

그 결과, ADL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시설의 자립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의 자립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형 그룹홈에는 자립형 거주자만이, 반의존형 그룹홈에는 자립형과 반의존형 거주자가, 의존형 그룹홈에는 모든 유형의 거주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DL의 경우에도 ADL과 마찬가지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설의 자립 유형에 따라서는 ADL과 같은 경향을 보이나 반의존형과 의존형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서는 조금 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ADL의 수행정도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IADL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ADL의 경우에는

자립형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반의존형이 19.2%, 의존형은 15.4%이었다. 일반적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는 평균 17.2점으로 자발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ADL의 경우에는 ADL과는 달리 자립형, 반의존형, 의존형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0.8%만이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는 평균 21.9점으로 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ADL은 자립형이나 IADL은 반의존형이었다. 이는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상하, 2003)에서 ADL과 IADL의 경향이 같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그룹홈의 시설적 특성의 영향인지, 거주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과 일반 고령자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표 7〉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따른 거주자 특성

시 설	거주자	연 령	성 별	ADL	IADL	
자립형	○그룹홈	B-1	72세	여자	자립	자립
		B-2	80세	여자	자립	자립
		B-3	78세	여자	자립	자립
		B-4	80세	남자	자립	자립
	B-5	79세	여자	자립	자립	
	ㄱ그룹홈	C-1	89세	남자	자립	자립
C-2		74세	여자	자립	자립	
C-3		83세	남자	자립	자립	
반의존형	ㄴ그룹홈	A-1	88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A-2	83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A-3	73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A-4	75세	여자	자립	반의존
		A-5	81세	여자	자립	반의존
		A-6	82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A-7	82세	여자	자립	반의존
		A-8	77세	여자	자립	반의존
의존형	ㄷ그룹홈	D-1	66세	남자	자립	반의존
		D-2	78세	남자	반의존	반의존
		D-3	79세	남자	반의존	반의존
		D-4	88세	여자	자립	반의존
		D-5	74세	여자	자립	반의존
		D-6	91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D-7	89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D-8	81세	여자	자립	반의존
		D-9	84세	여자	반의존	반의존
		D-10	84세	여자	자립	반의존

〈표 8〉 ADL과 IADL의 수행정도

변 인	구 분	N(%)	M(SD)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자립형	17(65.4)	17.2(4.10)
	반의존형	5(19.2)	
	의존형	4(15.4)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자립형	8(30.8)	21.9(8.43)
	반의존형	9(34.6)	
	의존형	9(34.6)	

〈표 9〉 시설별 ADL과 IADL의 수행정도 (명)

시 설	수행정도	ADL	IADL
자립형	○그룹홈	자립	5 → 5
		반의존	-
	ㄱ그룹홈	자립	3 → 3
		반의존	-
반의존형	ㄴ그룹홈	자립	4 → -
		반의존	4 → 5
		의존	- → 3
의존형	ㄷ그룹홈	자립	5 → -
		반의존	1 → 4
		의존	4 → 6

또한 각 시설별 거주자의 ADL과 IADL의 수행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9), 자립형인 ○그룹홈과 ㄱ그룹홈 거주자의 ADL과 IADL은 모두 자립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의존형인 ㄴ그룹홈 거주자의 경우, ADL은 자립형과 반의존형으로 나타났으나 IADL은 의존형과 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의존형인 ㄷ그룹홈 거주자의 ADL의 경우에는 자립형, 반의존형, 의존형이 모두 보였으나, IADL은 반의존형과 의존형만 나타났다. 즉 자립형 그룹홈 거주자들은 ADL과 IADL의 수행정도가 자립형으로 경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의존형 및 의존형 그룹홈 거주자들의 ADL과 IADL의 수행정도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설별 ADL과 IADL의 수행정도의 차이는 시설별 생활방식과 서비스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자립도가 낮은 ㄴ그룹홈과 ㄷ그룹홈의 경우에는 현재 그룹홈에서 식사 및 세탁, 주거관리 등의 가사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므로 ADL이 자립형인 거주자들마저도 자신이 가사노동을 직접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신은 하지 못한다'라고 인식하여 IADL은 반의존이나 의존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립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그룹홈과 ㄱ그룹홈의 경우에는 식사는 공동으로 하나 그룹홈 내 전반적인 생활이 자립형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직접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ADL과 IADL의 자립도가 높으며,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그룹홈의 운영방식이 거주자의 ADL 및 IADL의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고령자들의 자립생활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는데 ADL보다 IADL의 자립정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IADL의 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이용행태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상시간(5시 30분)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생활행위를 관찰조사 하였다. 그룹홈의 자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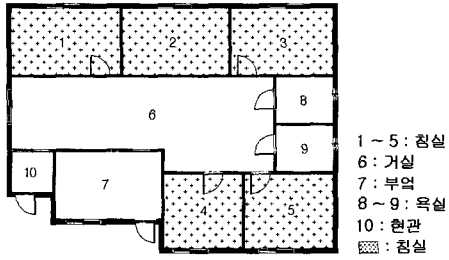
1) 자립형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 이용행태

조사대상 그룹홈 중 자립형 형태를 취하는 그룹홈은 ○그룹홈과 ㄱ그룹홈이다.

(1)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이용행태

그룹홈의 전체 거주자는 5명인데, 조사일 현재 자녀의 집에 다니러 간 거주자 1명(B-5)을 제외한 4명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그룹홈은 주택 형태가 2층 주택으로 1층은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2층은 운영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1층은 침실 5개,



<1F>  
(그림 1) 그룹홈 평면

거실, 부엌, 욕실 2개,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거주자들은 1인 1실의 개인실을 사용함으로써 거주자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그림 1).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면(그림 2), 거주자들의 기상시간은 다양하지만 오전 6시가 되면 침실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세수와 옷 입기, 몸단장을 마치고 거실에서 아침 인사를 나눈다. 이 그룹홈은 평일에는 공동식사, 주말에는 개별적인 취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7시에 공동식사를 하는 거주자들은 식당이 타 건물에 위치하므로 식사를 위해 이동한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원하지 않는 거주자는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

아침식사 후에는 마당에서 직접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음식을 주거나 텃밭을 관리하거나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는 등 각기 다른 행위를 하며 보낸다. 오전 중에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방에 있거나 거실과 부엌, 세탁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한다.

점심식사 후에는 방에서 낮잠을 자거나 TV 시청을 하며 식후 휴식을 취하는 경우와 빈번한 교류가 보이지는 않으나 지역 내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과 집 밖의 평상에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의 이웃교류행위도 볼 수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거주자는 주로 외부공간에서 모습이 보여지고 내성적이거나 신체가 불편한 거주자들은 주로 방이나 거실 등 실내에서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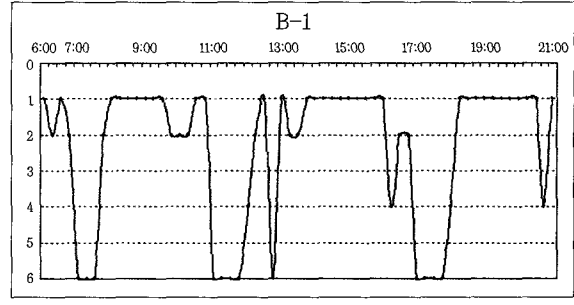
17시가 되면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동식사나 개별식사를 한 후 각자의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그룹홈 거주자들은 일괄적으로 식사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의 그룹홈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공간이용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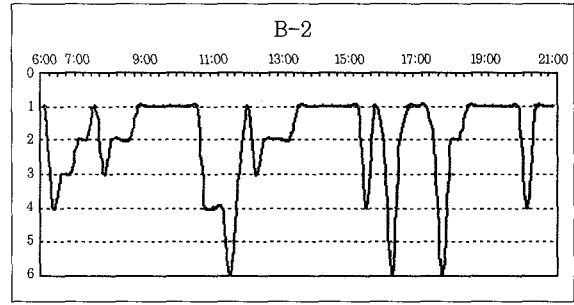
(2)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이용행태

그룹홈의 전체 거주자는 3명인데, 조사일 현재 친척집에 다녀러 간 거주자 1명(C-3)을 제외한 2명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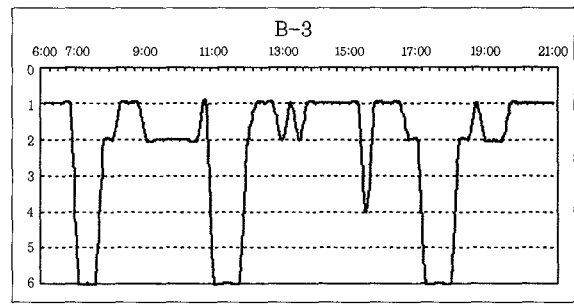
그룹홈은 단층주택으로 본관에는 거주자가 생활하고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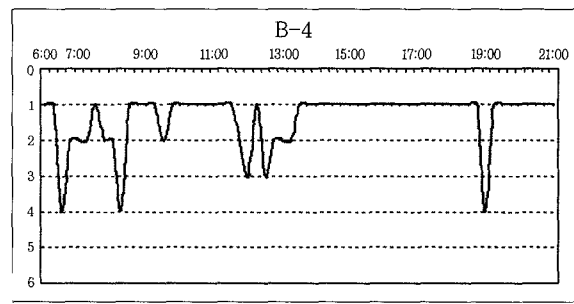
B-1: 72세, 여자, ADL(자립), IADL(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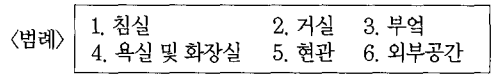
B-2: 80세, 여자, ADL(자립), IADL(자립)



B-3: 78세, 여자, ADL(자립), IADL(자립)



B-4: 80세, 남자, ADL(자립), IADL(자립)



(그림 2) 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행태

관에는 운영자 거주공간과 부엌 및 식당이 있다. 거주자가 생활하는 본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침실 5개, 거실 2개, 욕실 2개, 샤워실, 물리치료실, 현관, 그 외의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자 수에 비하여 공간의 수가 많아 공간을 매우 여유롭게 사용하며, 생활영역도 조금 넓게 나타났다(그림 3).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면(그림 4),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되면 세수와 옷 입기, 몸단장을 마치고 침실에서 나와서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이 그룹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종교행사가 행해지는데 6시에 예배실에서 아침 예배를 드린다. 그 후 거주자별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산책을 하거나 청소, 식사준비 보조 등의 가사활동을 한다. 오전 8시에 아침식사를 하는데 식

사는 공동식사이며, 셀프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남자고령자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아침식사 후에는 병원 검진과 이발 등을 위해 외출을 하였으며, 돌아온 후 점심식사를 하기 전까지 각자의 방에서 머물렀다.

12시에 점심식사를 한 후 남자고령자는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TV 시청을 하는 등 식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여자고령자는 자신의 침실과 거실 등을 청소하고, 외부에 있는 수돗가에서 세탁을 하였다. 즉 낮 동안의 자유시간은 서로 간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성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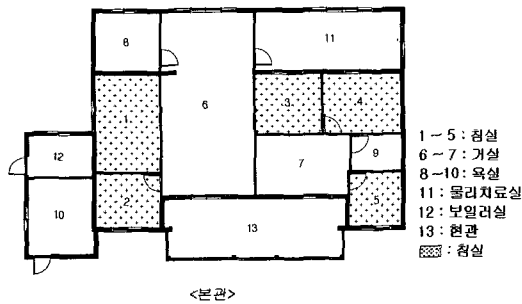
16시에는 부엌 및 식당공간에서 운영자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눈 후 저녁식사 전까지는 거실이나 개인실에서 머물렀다. 19시에 저녁식사를 한 후 20시에 저녁예배를 하고, 그 이후는 각자의 방에서 일과를 마무리한다.

### 2) 반의존형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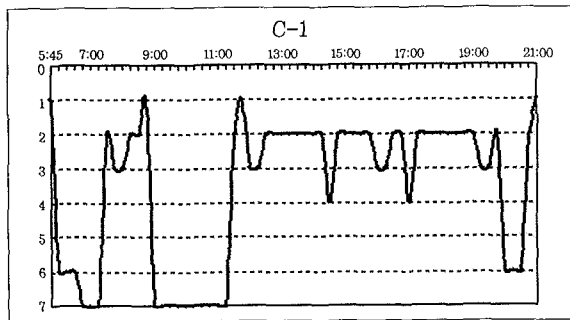
조사대상 그룹홈 중 반의존형 형태를 취하는 그룹홈은 B 그룹홈이다. 전체 거주자는 8명인데, 조사일 현재 병원에 입원한 거주자 1명(A-8)을 제외한 7명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B 그룹홈은 주택 형태가 3층 주택으로 1층과 2층은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3층은 운영자가 생활하고 있다. 1층과 2층의 공간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1층은 침실 4개, 거실, 부엌 및 식당, 사무실(응접실), 욕실 2개, 현관, 창고 등으로 구성되며, 2층은 침실 3개, 거실, 부엌, 욕실 2개, 샤워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ADL의 자립도가 높은 거주자는 침실이 2층에 있고 대부분의 거주자 침실은 1층에 있다. 또한 2004년에 신축된 건물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양호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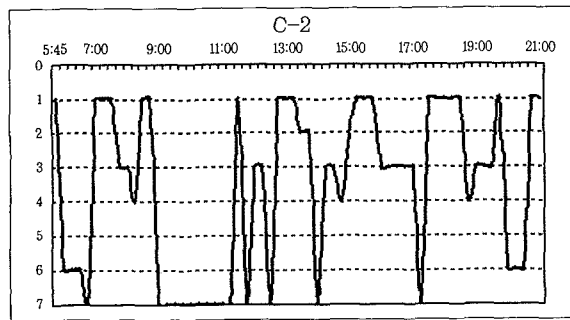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면(그림 6), 거주자들



<그림 3> A 그룹홈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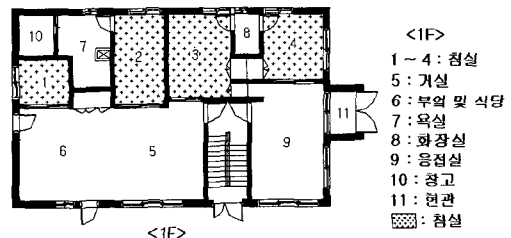
C-1: 89세, 남자, ADL(자립), IADL(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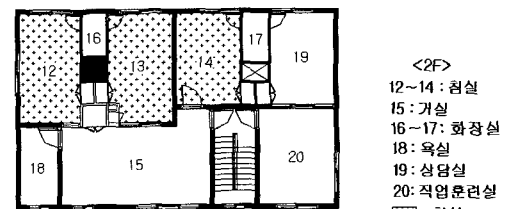
C-2: 74세, 여자, ADL(자립), IADL(자립)

- <범례> 1. 침실 2. 거실 3. 부엌 4. 욕실 및 화장실  
5. 현관 6. 예배실 7. 외부공간

<그림 4> A 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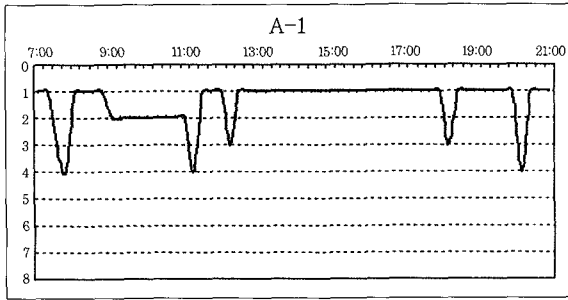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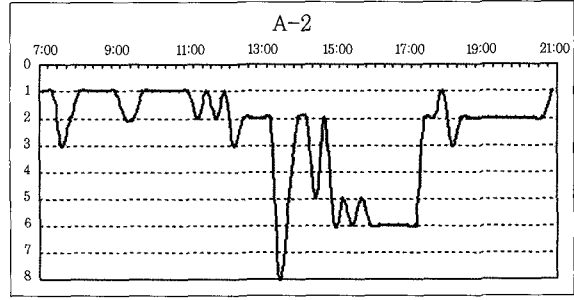
<2F>

<그림 5> B 그룹홈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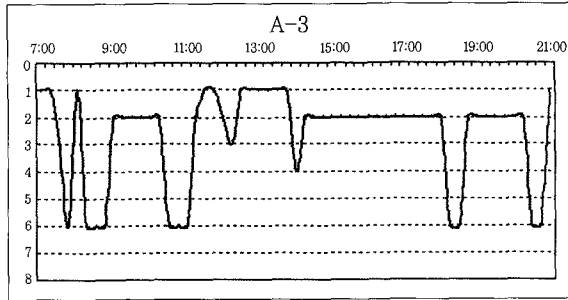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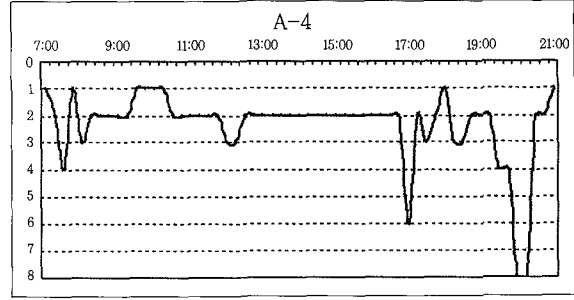
A-1: 88세, 여자, ADL(반의존), IADL(반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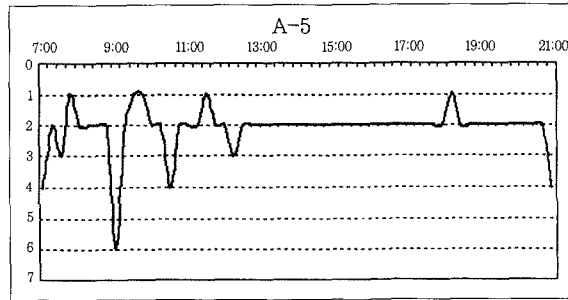
A-2: 83세, 여자, ADL(반의존),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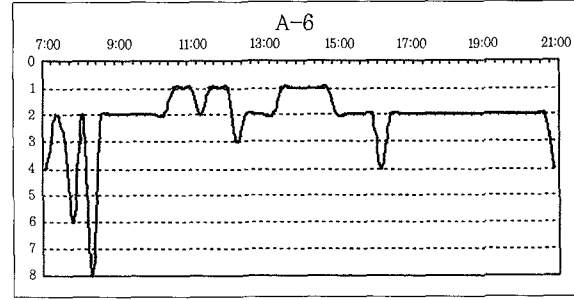
A-3: 73세, 여자, ADL(반의존),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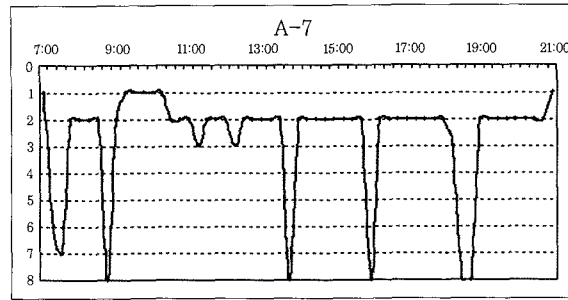
A-4: 75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A-5: 81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A-6: 82세, 여자, ADL(반의존), IADL(의존)



A-7: 82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 〈범례〉
- |             |         |        |
|-------------|---------|--------|
| 1. 침실       | 2. 거실   | 3. 부엌  |
| 4. 욕실 및 화장실 | 5. 현관   | 6. 응접실 |
| 7. 계단실      | 8. 외부공간 |        |

〈그림 6〉 노년층 거주자의 공간이용행태

의 기상시각은 각각각색이지만 오전 7시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침실에서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거주자의 생활주기는 대부분 식사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시 30분이 아침식사시간인데, 그전에 거주자들은 세수와

옷 입기, 몸단장을 하고 1층 거실에 모인다. 거실과 부엌 및 식사실이 통합된 공간구성이므로 식탁 주변에 거주자들이 먼저 와서 식사서비스를 기다린다.

아침식사 후에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거주자들 간

에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등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거실에 머문다. 오전 중에 대부분 1층 거실에 있거나 자신의 방에 주로 있다. 몇몇 거주자들은 방과 거실, 응접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낸다. 이는 장영희와 이문보(2001)의 연구에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과 같은 경향으로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생활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방이나 거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TV 시청, 직원과 담소를 나누는 등의 생활행위를 한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거주자들은 주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고, 내성적이거나 신체가 불편한 거주자들은 주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혼자서 지낸다.

18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거나 운영자와 담소를 나눈다. 21시경에는 자신의 개인실인 침실로 들어가 취침한다.

그룹홈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내 공간에서 TV 시청 외의 별다른 서비스나 여가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단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룹홈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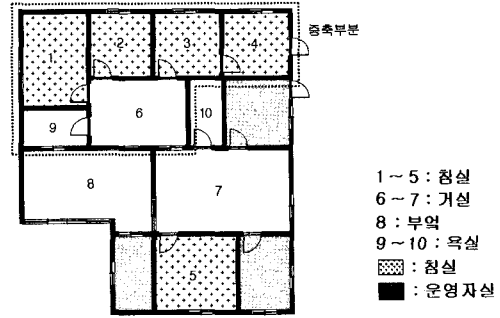
또한 반의존형 거주자의 경우 생활하는데 있어서 직원이나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반의존형 그룹홈의 경우 거주자들의 특성상 개인실 위주의 공간이용행태가 보여지기 쉽다. 즉 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공용공간에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룹홈의 경우, 개인실에 TV를 두지 않고 공용공간인 거실에 TV를 두으로써 반의존 성향을 띤 거주자들이 TV를 보기 위해 거실로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즉 거주자별 개인적 시간을 보면 거실 이용시간이 많은데, 이는 TV의 위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의존형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공간 이용행태

조사대상 그룹홈 중 의존형 형태를 취하는 그룹홈은 스그룹홈이다. 스그룹홈의 거주자 10명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이 그룹홈은 단층주택으로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없이 거주자와 운영자가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침실 8개(거주자 5개, 운영자 3개), 거실 2개, 욕실 2개, 부엌(현관의 역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즉 공간의 크기에 비해 조금 많은 인원이 생활하고 있어서 거주자들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공간이용이 단조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스그룹홈 평면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면(그림 8), 거주자들의 기상시간은 다양하지만 ADL이 반의존형인 고령자는 오전 6시에 침실에서 나와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나 ADL이 의존형인 고령자는 계속 침실에 머물렀다. 아침식사 전에 세수와 옷 입기, 몸단장을 하고 오전 7시에 각자의 지정 위치에서 아침식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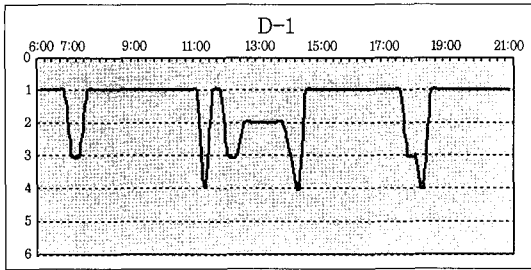
아침식사 후에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각자의 방에서 머무르며,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거주자들 간에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 즉 오전 중에는 자신의 방이나 거실에서 생활이 대부분이며, 몇몇 거주자들은 방과 거실, 부엌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낸다.

12시에 점심식사를 한 후 방이나 거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TV 시청, 직원과 담소를 나눈다. ADL과 IADL의 자립도가 높고 외향적인 성향의 거주자들은 주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나, ADL과 IADL의 자립도가 낮고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은 주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낮잠을 자는 등 혼자서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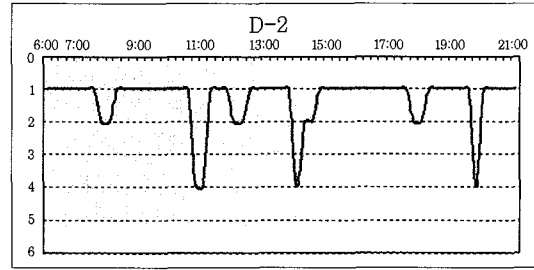
18시에 정해진 위치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거나 운영자와 담소를 나눈다. 21시부터는 침실로 들어가 취침한다.

스그룹홈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내 공간에서 별다른 서비스나 여가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단조롭게 이루어지며, 다른 조사대상 그룹홈들과 달리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공간이용의 범위와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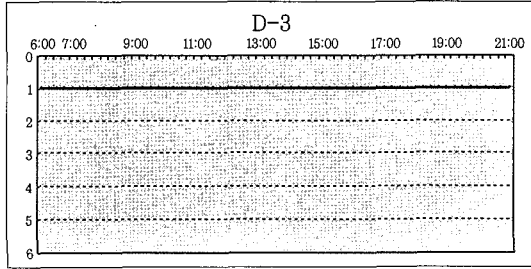
또한 스그룹홈은 그룹홈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식사가 이루어지는 점은 의존형 그룹홈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독립된 식당 공간이 없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 이는 거주자들간의 커뮤니티의 형성과 거주자의 자립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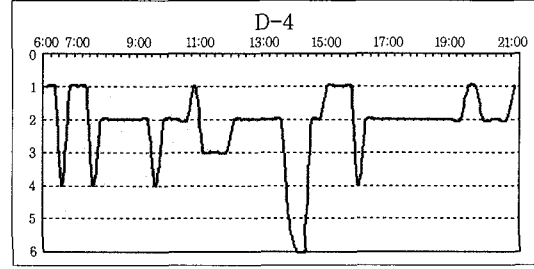
D-1: 66세, 남자, ADL(자립),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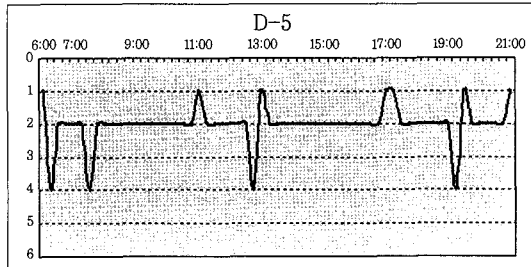
D-2: 78세, 남자, ADL(의존),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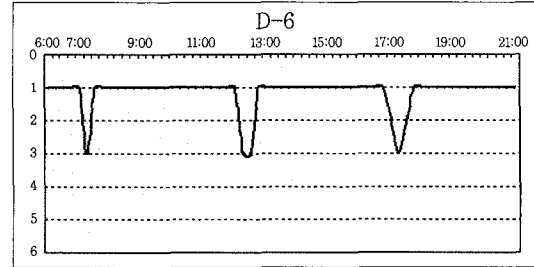
D-3: 79세, 남자, ADL(의존),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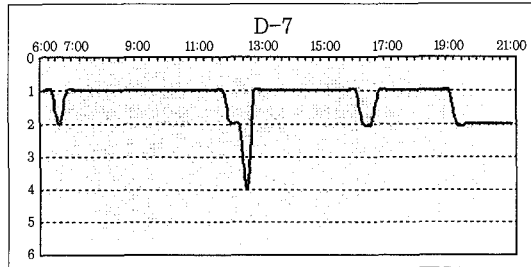
D-4: 88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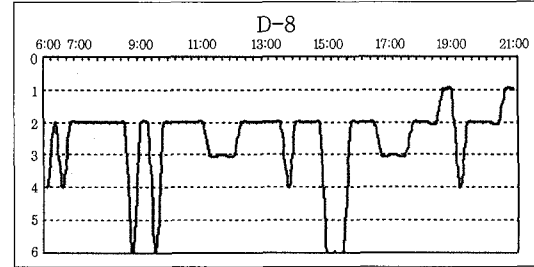
D-5: 74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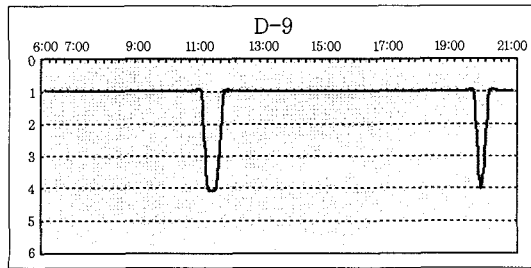
D-6: 91세, 여자, ADL(반의존), IADL(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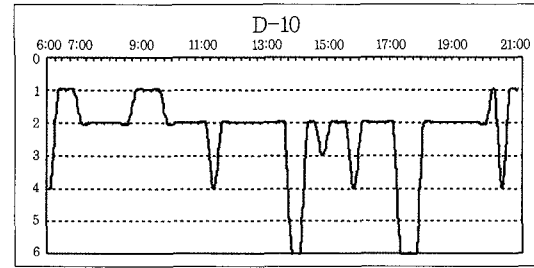
D-7: 89세, 여자, ADL(의존), IADL(의존)



D-8: 81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D-9: 84세, 여자, ADL(의존), IADL(의존)



D-10: 84세, 여자, ADL(자립), IADL(반의존)

〈범례〉 1. 침실 2. 거실 3. 부엌 4. 욕실 및 화장실 5. 현관 6. 외부공간

〈그림 8〉 S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행태

#### IV. 결론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공간이용행태를 분석하여 그룹홈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 생활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ADL에 있어서는 '목욕하기' 행위를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IADL은 '식사준비하기'를 가장 수행하기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고령자가 남자고령자보다 일상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령군의 남자고령자에 비하여 여자고령자에게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따라 거주자들을 자립, 반의존, 의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5.4%의 거주자는 ADL이 자립적이었으나 IADL의 경우에는 자립형, 반의존형, 의존형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그룹홈의 자립 정도에 따른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자립형 그룹홈 거주자들은 ADL과 IADL의 수행정도가 자립형으로 그 경향이 같았으나 반의존형 그룹홈과 의존형 그룹홈 거주자들은 ADL보다 한 단계 낮은 IADL의 수행정도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 그룹홈에서는 거주자의 ADL과 IADL의 수행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생활방식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공간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자립형 그룹홈은 개개의 거주자별로 공간이용행태가 다르며, 공간이용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의존형 그룹홈 거주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용공간에서 보내며, 별다른 서비스나 여가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의존형 그룹홈은 공간의 크기에 비해 많은 인원이 생활하고 있어 거주자들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며, ADL과 IADL의 수행능력에 있어 자립도가 낮은 거주자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공간이용행태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신체적인 조건, 대인관계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공간의 크기, 구성, 배치 등의 공간적 특성, 생활방식 등에 따라 공간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그룹홈에서 거주자들의 생활행위와 생활공간의 대응적 측면에서 나타난 거주자들의 공간이용패턴이 고령자 그룹홈 계획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반의존형과 의존형 거주자의 IADL의 수행정도가 ADL보다 한 단계 낮은 경향으로 나타난 것과 그룹홈의 생활이 대부분이 별다른 서비스나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고령자들의 IADL의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그룹홈에서 제공한다면 거주자들의 자립생활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현진, 임희경, 안옥희(2005).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6, 93-96.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 박상하(2003). ADL과 IADL를 통한 노인생활실태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19, 199-223.
- 서혜정(2002). Group Home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선호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덕, 오영희, 변재관, 이주열, 석재은, 김창엽, 전경자(2000).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모형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00-49.
- 이영수, 원장원(2002). 한국형 ADL, IADL의 적용.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수강좌 프로그램. 가정의학회지, 23(4), 188-197.
- 장영희, 이문보(2001). 노인의 주거내 일상생활행태 연구 -서울시의 강남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는 문집 계획계, 17(9), 83-90.
- 지은영(2003).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 개발 방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田中紀之, 神吉優美, 三浦 研, 高田光雄(2005). 施設の居住環境が高 ADL 高齢者の生活行爲に及ぼす影響 -居住者の自己記録および歩数・運動量記録計データに基づく生活時間の分析-. 日本建築學會論文集, 592, 49-55.

(2006년 4월 30일 접수, 2006년 6월 27일 채택)